

[세종대학교 문항정보]

<문항카드 1>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인문과학대학) / 문항 1,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도덕,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외부 효과, 국가 개입의 역할, 자유의 필요성과 억제의 근거, 자율성과 통제
예상 소요 시간	120분	

2. 문항 및 자료

(가) 외부 효과란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부 효과가 타인에게 이익을 주면 외부 경제(긍정적 외부 효과), 반대로 손실을 끼치면 외부 불경제(부정적 외부 효과)가 된다. 예컨대 꽃집에서 화사한 화분을 진열해 놓은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낮은 트럭에서 내뿜는 시커먼 매연은 불편을 초래한다. 꽃집은 타인에게 외부 경제를, 매연을 내뿜는 트럭은 외부 불경제를 제공한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부 경제는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좋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는 심각한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기에 늘 사회적 관심사가 된다.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해와 환경 문제이다. 술, 담배, 비만 유발 식품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것들은 즐기는 자신은 좋을지 몰라도, 과할 경우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따라서 외부 불경제를 법으로 규제하거나 수혜자(受惠者)에게 비용(세금)을 물려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 외부 효과를 시정(是正)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피구세'라고 부른다. 피구세는 첫 제안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피구(1877~1959)의 이름을 딴 것으로, 외부 불경제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외부 효과를 내부화, 즉 본인 부담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다. 환경세(환경 부담금), 교통세(교통 부담금) 등이 피구세의 범주(範疇)에 속한다.

피구세 중에서도 국민 건강과 복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특정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물리는 세금을 죄악세라고 부른다. 일부 국가에서 논의되었던 설탕세(당 함유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 소다세(탄산음료에 물리는 세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설탕, 탄산음료 등과 같은 식품은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료 수요 증가, 건강 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므로 이를 억제하고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외부 불경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介入)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세금 제도는 취지(趣旨)가 좋다고 쉽게 정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개입**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외부 효과를 근거로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는 논쟁거리이다.

(나)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의견이 본인에게는 모를까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고 따라서 그 억압이 그저 사적으로 한정된 침해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억압을 받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행위가 현재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까지, 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에게까지 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러한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가지고, 또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견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강압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한다.

(다) 엷박자 D의 노래는 들어 줄 만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 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 음악 선생님은 고개를 갇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합창을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엷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음악 선생님은 엷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병긱병긱하는 거야. 알았지?” (...)

(중략 부분의 줄거리) 엷박자 D가 노래를 부른 탓에 합창단의 축제 공연은 엉망이 된다. 이에 음악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합창을 멈추게 하고 그에게 망신을 주었다. 시간이 흐른 후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던 ‘나’는 20년 만에 무성 영화 전문가가 된 엷박자 D의 연락을 받게 된다. ‘나’는 유명 가수인 ‘더블더빙’의 공연 기획자로 이름을 올려 보고 싶은 욕심에 엷박자 D가 기획하는 ‘더블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공연을 함께 준비하게 된다. 엷박자 D의 부탁으로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을 함께했던 몇몇 친구들을 공연에 초청한다.

(...)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 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

백을 하고」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엿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스물 두 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 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엿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1. 제시문 (가)의 ‘**선한 의도로 개입**’의 의미를 기술하고, 이것과 부합되는 내용을 (나)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등장한 음악 선생님의 행동을 비판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 3. 출제 의도

2021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은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 성취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범교과적인 문항을 출제하였다. 국어와 도덕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활용하였으나, 특정한 사전지식 없이도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된 독서 및 글쓰기 능력이 있다면 수월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논술은 지원자들의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비판 능력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세종대학교 학생으로 선발될 충분한 종합적 사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1>은 외부 불경제를 시정하기 위한 선한 의도의 개입의 의미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시문 (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이해력과 그것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특히 (나)의 논지가 변하고 있는 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문항 2>는 제시문 (다)의 음악 선생님의 행동을 비판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 근거로 (가)와 (나)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이는 <문항 1>을 작성하면서 채택한 (가)와 (나)의 논지를 거꾸로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권위적인 개입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다시 생각해야 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억압하는 두 가지 위험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체계적으로 (다)에 적용해야 한다.

위에 열거한 능력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면 충분히 갖추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고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 4. 출제 근거

<b>적용 교육과정</b>	<p>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p> <p>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p> <p>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과목명: 통합사회, 사회·문화</p>		
<b>관련 성취기준</b>	<b>1. 국어과 교육과정</b>		
	<b>과목명: 국어</b>		
	<b>성취기준 1</b>	<p>[읽기]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p>	<p>가) 나) 다) 문항 1 문항 2</p>
	<b>성취기준 2</b>	<p>[읽기]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성취기준은 여러 자료에 대한 비판적 독서를 통해 독자 자신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필자의 관점이나 생각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며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관과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발견하기도 한다. 글을 읽으면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떠올리며 읽는 것은 비판적·창의적 읽기의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읽기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li> </ul>	<p>가) 나) 다) 문항 1 문항 2</p>
	<b>성취기준 3</b>	<p>[쓰기]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p>	<p>문항 1 문항 2</p>
	<b>성취기준 4</b>	<p>[쓰기]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성취기준은 자신의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고쳐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소재가 같은 글이라도 주제, 목적, 독자, 매체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의 내용이나 형식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한다.</li> </ul>	<p>문항 1</p>
	<b>성취기준 5</b>	<p>[문학]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성취기준은 문학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을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의 이론적 갈래인 서정, 서사, 극, 교술의 4분법 체계에 따라 각각의 갈래에서 삶을 형상화하는 데 어떠한 요소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한다.</li> </ul>	<p>다)</p>
	<b>과목명: 화법과 작문</b>		
	<b>성취기준 1</b>	<p>[화법과 작문의 본질]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p>	<p>문항 1 문항 2</p>

	함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2	[작문의 원리]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 이 성취기준은 독자의 요구, 관심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논거를 수집하고 조직함으로써 설득력이 높은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수집한 논거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도록 한다.	문항 1 문항 2

<b>과목명: 독서</b>		<b>관련</b>
----------------	--	-----------

성취기준 1	[독서의 방법]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이 성취기준은 글을 읽고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 글의 전개 방식 등을 파악하는 사실적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사실적 독해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내용의 중요도 평정,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 각 문단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선정한 내용들의 종합과 재구성 등의 독해 기능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	---	--------------------------------

성취기준 2	[독서의 방법]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나) 다) 문항 1 문항 2
-----------	---	--------------------------

성취기준 3	[독서의 방법]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 이 성취기준은 여러 글에 제시된 다양한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삶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글에서는 필자나 독자 개인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다루어지며, 이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나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글에 나타난 주제, 관점 등에 대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구성하도록 안내한다.	가) 나) 다) 문항 2
-----------	--	------------------------

성취기준 4	[독서의 분야]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다) 문항 2
-----------	---	------------

성취기준 5	[독서의 분야]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가) 나) 문항 1 문항 2
-----------	--	--------------------------

<b>과목명: 문학</b>		<b>관련</b>
----------------	--	-----------

성취기준 1	[문학의 본질]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 이 성취기준은 우리의 삶에서 문학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은 문학의 인식적 기능에 해당하며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 해당한다. 또한 문학이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는 것은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학을	다) 문항 2
-----------	---	------------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성취기준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나) 다) 문항 2
성취기준 3	[문학의 수용과 생산]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다) 문항 2

##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사회와 윤리]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한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가) 나) 문항 1
성취기준 2	[평화와 공존의 윤리]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3	[사회사상]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가) 나) 문항 1

##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나) 문항 1
성취기준 2	[문화의 다양성]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다) 문항 2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가) 나) 다) 문항 1
성취기준 2	[개인과 사회구조]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다) 문항 2
성취기준 3	[개인과 사회구조] [12사문02-02]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다) 문항 2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오형규	좋은책 신사고	2020	240~241	제시문 (가)	재구성 없음
생활과 윤리	J. S. Mill	미래엔	2020	132	제시문 (나)	재구성 없음
독서	김중혁	좋은책 신사고	2020	90~94	제시문 (다)	재구성 없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해당 사항 없음						

## 5. 문항 해설

<문항 1>은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의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화작 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및 “도덕과 교육과정”의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과 교육과정”의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문 (가)에서의 선한 의도로 개입은 본인에게는 좋지만 타인에게는 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를 정부 차원에서 억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문항에 답하려면 이를 본문의 어휘를 사용하여 정확히 기술하고, (나)의 맥락에서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는지 기술해야 한다.

<문항 2>는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와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및 “사회과 교육과정”의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에 답하려면 제시문 (가)와 (나)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의 음악 선생님을 비판해야 한다. 음악 선생님은 ‘엇박자 D’가 불협화음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를 통제하고, 배제하고, 급기야 망신을 준다. 제시문 (가)는 선한 의도의 개입이 의도와 달리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제시문 (나)는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억압하는 것의 두 가지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와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음악 선생님의 행위를 비판할 수 있다.

## 6. 채점 기준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이해력	90	250	700
	비판적 사고력	90		
	표현력	35		
	정서법	35		
	분량	0 ~ -30		
2번 대문항	이해력 1	120	450	
	비판적 사고력 1	120		
	비판적 사고력 2	120		
	구성 및 표현력	50		
	정서법	40		
	분량	0 ~ -40		

##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제시문 (가)의 ‘선한 의도로 개입’의 의미를 기술하고, 이것과 부합되는 내용을 (나)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 (가)에서의 ‘선한 의도로 개입’은 본인에게는 좋지만, 타인에게는 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를 정부 차원에서 억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나)는 대체로 개인들의 사상과 의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라면 강압적인 통제가 필요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가)의 외부 불경제를 의미하며,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킬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면 사회 전체가 개입하여 통제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2. 제시문 (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등장한 음악 선생님의 행동을 비판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 (다)의 음악 선생님은 합창단 공연에서 '엇박자 D'가 불협화음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자진 사퇴를 권하다가 결국 그에게 입만 병긱병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엇박자 D는 끝내 노래를 불렀고 그 탓에 공연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음악 선생님은 엇박자 D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었다.

(가)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를 법으로 규제하거나 세금을 물려 억제하는 정부의 선한 의도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를 (다)에 적용한다면 음악 선생님이 엇박자 D에게 합창에서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소리 내지 않기를 종용하는 등의 개입은 성공적인 공연을 위한 선한 의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 선생님의 개입은 학생들의 합창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음악 선생님의 과도한 간섭과 질책으로 즐거운 축제를 망친 것은 아닌지 비판의 여지가 있다.

(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견해를 통제하는 것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옳은 견해였다면 진리를 억압하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틀린 견해라고 할지라도 그 틀린 견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진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엇박자 D의 기회를 억압한 음악 선생님의 행동은 비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반드시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틀렸다고 할지라도 엇박자 D의 참여를 제한하지 말았어야 한다. 훗날 밝혀졌듯이 엇박자 D는 다른 아이들과의 목소리와 함께 더 좋은 화음을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